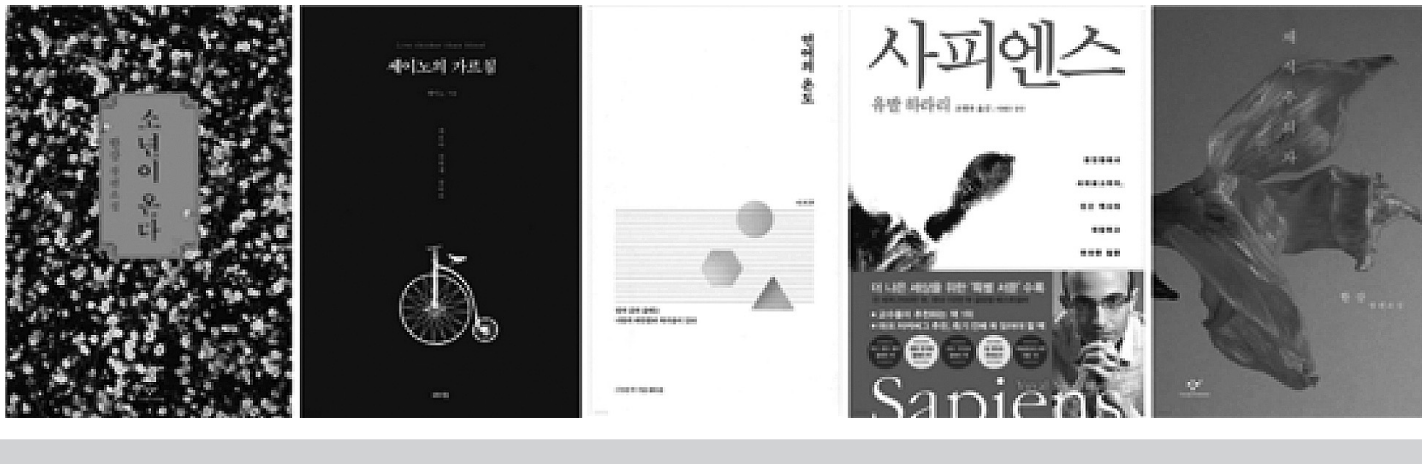




‘소년이 온다’ 10년간 가장 많이 팔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을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1980년 당시 참혹하게 짓밟혔던 항쟁 과정,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시적인 문체로 형상화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예스24간 최근 10년간 ((2016.1.1~2025.4.20) 예스24 판매량 기준 베스트셀러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소년이 온다’는 노벨상 수상 이후 판매가 급증하며 10년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예스24 ‘세계 책의 날’ 트렌드 분석

1980년 5월 18일 이후 열흘 그려 한강 작가, 10위권에 3권 랭크

‘세이노의 가르침’·‘언어의 온도’ 순 사회정치 분야 1위 ‘총, 균, 쇠’ 경제 분야 1위 ‘돈의 속성’ 등

2위는 2023년 출간된 ‘세이노의 가르침’이, 3위는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가 차지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2000년부터 발표된 주옥 같은 글들을 모은 책으로 저자인 세이노는 필명으로 ‘Say No’라는 뜻이다. 특히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No!’를 외치고 제대로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의 온도’는 모든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저자는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고 강조한다. 세상살이에 지쳐 있을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

을 읽으며 문장이 주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다.

이번 분석에서 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들은 저마다 개성적인 빛깔을 드러낸다. 사회정치 분야 1위는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차지했다. 뉴욕타임스 선정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권’ 중 하나로 뽑혔으며 1998년 풀리처상 수상작으로 출간됐다.

경제 분야 1위에는 돈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소개한 ‘돈의 속성’이 올랐다. 책은 2020년 출간 이후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총 169주간 오르기도 했다.

종교 분야 1위는 ‘온전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독자들의 고민에 대한 법륜 스님의 지혜를 담은 ‘법륜 스님의 행복’이 차지했다.

오은영 박사의 육아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는 가정살림 분야 1위에 2020년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한국인 최초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은 유아 분야 1위에 올랐다.

한편 예스24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예스24 도서 PD가 직접 엄선한 추천 도서’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전은 문학을 비롯해 인문, 예술 등 다채로운 도서들로 꾸려져 독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터팬과 네버랜드로 떠나요~

광주시립합창단, 23~24일 광주예술의전당서 합창뮤지컬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3일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합창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을 선보인다.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환상적인 합창뮤지컬로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로 떠나보자.

광주시립합창단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오는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3시, 2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위한 합창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명작 동화 ‘피터팬’을 생동감 있게 각색한 작품으로, 합창과 연기, 안무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 피터팬과 그의 양숙 후크선장이 벌이는 흥미진진한 모험 속에서 아이들은 상상력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다. 웬디와 동생들이 피터팬을 따라 떠나는 신비한 네버랜드 여행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낸 동심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공연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쉽고 아름다운 음악과 섬세한 연출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

로잡는다. 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하모니, 킥벨역을 맡은 아역 배우의 사랑스러운 연기, TBN어린이합창단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클래식부터 현대음악까지 넘나드는 이상열 밴드의 생생한 연주가 더해져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만든다.

시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에 지역 어린이 단체를 초청해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고, 공연 관람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에게도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임창은 상임지휘자는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합창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 공연이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었던 이웃들에게도 열린 무대가 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약. /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해남 옥매산 돌탑에 깃든 아픔의 역사

해남 출신 박상희 작가, 장편동화 ‘돌탑이 된 사람들’ 펴내

해남 옥매산은 조선시대 옥(玉)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울돌목 초입에 자리하고 있어 왜적의 동태를 감시하기에 용이했다. 명랑대첩의 승전지로도 알려진 이곳은 아픔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곳에 쇠말뚝을 박아 우리민족의 정기를 끊으려 했다.

또한 일제는 식민시기 옥매산에서 우리 광부들을 동원해 명반석을 채굴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1945년 봄에는 제주도까지 사람들이 끌려가 명반석 캐는 노역을 해야 했다.

지난 2012년 옥매산에 박힌 일제 쇠말뚝이 광복절에 제거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세상을 떠난 옥매산 광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추모탑을 건립해 냈을 기렸다.

해남 출신 박상희 작가가 옥매산 돌탑을 모티브로 장편동화를 펴냈다.

‘돌탑이 된 사람들’ (청개구리)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작가가 이번 장편동화를 펴내게 된 것은 “옥매산에 올라가던 중 광부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쌓은 돌탑을 발견하고서였다”고 했다.

박 작가는 “제주도까지 끌려가 강제로 굴을 파



는 노역에 동원했던 이들은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타고 있던 배에 불이 나 대부분 사람들이 수장됐다”며 “이 사건은 우리 근대사의 슬픈 비극 가운데 하나로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동화는 당시 수탈과 강제노동에 희생된 광부들, 귀향선에서 수장된 이들의 영혼들에 바치는 헌사의 성격을 갖는다.

박 작가는 “동화를 매개로 ‘옥매산 돌탑’에 깃든 아픈 역사와 사연을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한다”며 “이번 작품은 해남의 딸로 태어나 꼭 해야 할 숙제를 마친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작가는 광주대 문장교를 졸업했으며 영남문학상 동화 부문 당선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빠와 함께 떠나는 나루 여행’, ‘이 모티콘 할머니’ 등의 작품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통 가치 존중할 때 부처님 오신 뜻 실현”

천주교·NCCK,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 발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서로의 차이보다 공통된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더욱 깊이 실현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정 대주교는 불기 2569년 (2025년) 부처님오신날 (5월 5일)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그 기쁨을 나

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직후 외친 것으로 전해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 “모든 생명이 본래 존엄하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긴 선언이었다”며 “이 가르침은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교와 사상이 공유하는 ‘생명 존중’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는 김종생 총무 명의로 이날 발표한 축하 메시지에서 “우리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치유와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 즉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자비로 세상을 치유하는 심김,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에 따스한 존경을 표한다”며 “모든 승가와 불자들에게 평화를 바라며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NCCK는 “매년 열리는 연등회를 통해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더불어 ‘기도의 빛’을 비추어 주니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된다”며 “이 빛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평안의 빛,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빛으로 확장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